

| 지역 | 국가 | 분류 | Ticker | 이름 | 요약 |
|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글로벌 전체 | | Total | VT US | Vanguard Total World Stock ETF | 글로벌 증시 대표 ETF. ACWI보다 소형주 비중 높은 편 선진국 비중 95.5%, 미국 비중 55.7%여서 차별화 어려울 수도 |
| | | Total | ACWI US | iShares MSCI ACWI ETF | VT에 비해서는 구성 종목 수 적고 대형주, 은행 섹터 편중 수수료가 VT보다 높다는 점도 장기 보유에는 불리한 점 |
| 미국 제외 | | Total | VEU US | Vanguard FTSE All-World ex-US ETF | '미국 섹터/테마 ETF+미국 제외 글로벌' 조합의 최우선 부품 미국 빼면 일본이 최대. 때문에 EWJ와 상관성 높아 중복 주의 |
| 선진국 전체 | | Total | URTH US | iShares MSCI World ETF | 선진국+신흥국 조합에 필요한 부품. 단, 미국 비중 62.3% 달해 신흥국 제외 글로벌 증시. 유용성 불충분해 기관 보다 개인 적합 |
| 미국 제외 | | Total | VEA US | Vanguard FTSE Developed Markets ETF | 미국 섹터 ETF 포트폴리오에다 여타 선진국 추가할 때 유용 소형주, 캐나다 포함. 운용 수수료 저렴해 장기 보유 적합 |
| 아시아 | | Total | VPL US | Vanguard FTSE Pacific ETF | 경쟁자인 IPAC과 달리 한국 포함해 일본 비중도 60.2% 억제 그럼에도 불구하고, EWJ와 상관계수 여전히 +0.947 달해 중복 주의 |
| 일본 제외 아시아 | | Total | EPP US | iShares MSCI Pacific ex-Japan ETF | 일본, 한국 제외. 때문에 호주(58%) 편중. EWA 상관성 +0.951 국내 ETF 바스켓 + 일본 ETF 바스켓 + 그 밖의 아시아 ETF |
| 유럽 | | Total | VGK US | Vanguard FTSE Europe ETF | 16개 유럽 선진국 증시 종목들로 구성. 유로존보다 넓은 범위 영국 비중 28.9%. 때문에 EWU(상관계수 +0.93)와 섞지 말 것 |
| 신흥국 전체 | | Total | IEMG US | iShares Core MSCI Emerging Markets ETF | 한국(15.7%), 소형주(14%) 포함. 단, 선진국 비중 더 높은 편 신흥국이 중요하다면 VWO가 적합하나 여전히 홍콩 비중 높아 |
| 아시아 | | Total | GMF US | SPDR S&P Emerging Asia Pacific ETF | 한국 제외, 소형주(11%) 포함. 홍콩(35%), 대만(22%) 편중 신흥국 중 아시아 비중 70% 달해 신흥국 전체와 차이점 적어 |
| 북미 | 미국 | Large Cap | SPY US | SPDR S&P 500 ETF Trust | 최고(最古), 최대의 ETF. 주로 미 증시 대형주(95.8%)로 구성 단위 투자 신탁이므로 배당 재 투자나 주식 대여 없음 |
| | | Total | VTI US | Vanguard Total Stock Market ETF | 미 증시에 상장된 3,500여개의 대형+중형+소형 종목으로 구성 수수료 4b.p에 불과해 미 증시 전체에 대한 장기 보유 용도 적합 |
| | | Large Cap | QQQ US | Invesco QQQ Trust | 기술+성장+대형. 분기별 20% 한도, 대형주 합계 40% 한도 나스닥 전체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QQQ+QQXT의 조합이 필요 |
| | | 3X | TQQQ US | PROSHARES ULTRAPRO QQQ | 나스닥 100 지수에 +3배 반응하는 레버리지 ETF |
| | | 2X | SSO US | PROSHARES ULTRA S&P500 | S&P500 지수에 +2배 반응하는 레버리지 ETF |
| | | 2X | QLD US | PROSHARES ULTRA QQQ | 나스닥 100 지수에 +2배 반응하는 레버리지 ETF |
| | | 3X | UPRO US | PROSHARES ULTRAPRO S&P 500 | S&P500 지수에 +3배 반응하는 레버리지 ETF |
| | | -2X | SDS US | PROSHARES ULTRASHORT S&P500 | S&P500 지수에 -2배 반응하는 인버스 ETF |
| | | -3X | SQQQ US | PROSHARES ULTRAPRO SHORT QQQ | 나스닥 100 지수에 -3배 반응하는 인버스 ETF |
| | | -3X | SPXU US | PROSH ULTRAPRO SHORT S&P 500 | S&P500 지수에 -3배 반응하는 인버스 ETF |
| -2X | QID US | PROSHARES ULTRASHORT QQQ | 나스닥 100 지수에 -2배 반응하는 인버스 ETF | | |
| 캐나다 | | Total | EWC US | iShares MSCI Canada ETF | 캐나다 증시 시총 상위 85% 커버. 대형주 77%+중형주 23% 수정 시가 총액식. 대표성 충분하지만 환율 효과 커서 주의 |

| 지역 | 국가 | 분류 | Ticker | 이름 | 요약 |
|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|---|
| 남미 | 전체 | Large Cap | ILF US | iShares Latin America 40 ETF | 유일한 남미 전문 ETF. 구성 종목 수 적고 일부 국가/종목 편중 단, 여타 국가들과 상관성 극히 낮아 분산 투자 부품으로 적합 |
| | 브라질 | Total | EWZ US | iShares MSCI Brazil ETF | 시장과 같은 구조를 가진 유일한 브라질 ETF. 수수료 비싼 편 BOVESPA 지수와 상관성 높지만 환율 효과 탓에 성과는 저조 |
| | 멕시코 | Total | EWW US | iShares MSCI Mexico ETF | 유일한 멕시코 ETF. 25/50 규정 적용 탓에 중형/소형 종목 비중 기술, 에너지, 유틸리티가 정부 소유. 경제와 증시 연관성 저하 |
| | 캐나다 | Total | EWC US | iShares MSCI Canada ETF | 캐나다 증시 시총 상위 85% 커버. 대형주 77%+중형주 23% 수정 시가 총액식. 대표성 충분하지만 환율 효과 커서 주의 |
| 아시아 | 홍콩 | Total | EWH US | iShares MSCI Hong Kong ETF | HSI와의 차이는 중국 본토 주식이 포함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, 환율 효과 배제하면 홍콩 증시를 잘 대변 |
| | 태국 | Total | THD US | iShares MSCI Thailand ETF | 유일한 태국 ETF. 25/50 규정 불구, 일부 업종/종목 집중 SET 지수와 상관계수 +0.91. 단, 수수료 +0.62%로 높은 편 |
| | 중국 | Total | GXC US | SPDR S&P China ETF | 중국 ETF들 중 수익/위험 비중 최고. H주 74%+A주 24%. BAT 포함. 단, 중국 증시 대비 기술주, 대형주 편중 |
| | 일본 | Total | EWJ US | iShares MSCI Japan ETF | 일본 ETF들 중에서 최고. 321개 종목들로 구성 대형/중형 편중, 환율 효과 불구, 일본 증시와 유사한 움직임 |
| | 일본 제외 아시아 | Total | AAXJ US | iShares MSCI All Country Asia ex Japan ETF | 일본, 호주 제외한 선진국(72%)+신흥국(28%) 구성 홍콩(36.5%) > 한국(16.2%)로 시가 총액 대비 다소 편중 |
| | 인도네시아 | Total | EIDO US | iShares MSCI Indonesia ETF | 유동성 측면에서 유일한 인도네시아 ETF. JCI 잘 추적하는 편 신흥국 지역 펀드에 더해 잠시 인도네시아 비중 높일 때 유용 |
| | 인도 | Large Cap | INDY US | iShares India 50 ETF | AUM은 INDA가 높지만 인도 증시 NIFTY50과 더욱 닮은 편 본국과의 수익률 상관계수는 +0.934로 국가 ETF들 중 최고 |
| | 오스트레일리아 | Total | EWA US | iShares MSCI Australia ETF | 유동성 측면에서 유일한 호주 ETF. 대형주+중형주 편중 환율 효과가 상대적으로 커서 달러 강세 시 불리 |
| | 베트남 | Total | VNM US | VanEck Vectors Vietnam ETF | 유일한 베트남 ETF. 베트남 거주/수익 해외 기업까지 포함 상대적으로 소형주 비중 높아 베트남 증시와 다소 다른 구조 |
| | 말레이시아 | Total | EWM US | iShares MSCI Malaysia ETF | 유일한 말레이시아 ETF. 국가 ETF 중 해당 수익률 가장 높아 대형주 편중. 단, 시장 구조상 대형주만으로는 시장 복제 불가 |
| | 대만 | Total | EWT US | iShares MSCI Taiwan ETF | 25/50 규정 적용해 대만 증시보다 기술 비중 50%로 억제 TSMC(22.8%) 제외하면 비교적 고른 종목 비중 분포 |
| 유럽 | 독일 | Total | EWG US | iShares MSCI Germany ETF | 독일 증시와 가장 닮은 ETF. 대형주+중형주 다소간 편중 대형주는 세계 증시, 선진국 증시 ETF에 상당 수 포함돼 주의 |
| | 영국 | Total | EWU US | iShares MSCI United Kingdom ETF | 영국 증시에 비해 금융주 비중 낮고 나머지 업종 비중 높은 편 유로존 국가들과 상관성 높은 점, 환율 효과 큰 점 등에 주의 |
| | 러시아 | Total | RSX US | VanEck Vectors Russia ETF | 러시아 증시 종목+해외 러시아 기업들로 구성. 에너지 편중 여타 국가들과의 상관계수 낮아 분산 투자 효과 개선 가능 |
| | 스위스 | Total | EWL US | iShares MSCI Switzerland ETF | 시장 고유 특성상 제약+음식료 섹터에 편중. 환율 효과 큰 편 선진국 펀드에 포함된 종목들 많아 중복 투자에 주의할 것 |
| | 프랑스 | Total | EWQ US | iShares MSCI France ETF | 섹터 분산은 양호하나 섹터 내에서는 소수 대형주에 편중 달러-유로화 환율에 따라 성과 차이 큰 편 |
| | 터키 | Total | TUR US | iShares MSCI Turkey ETF | 여타 국가들과의 상관계수 가장 낮은 편. 분산 투자 유리 단, 환율 효과 커서 터키 증시 수익 제대로 얻기 어려운 편 |

자료: Bloomberg, ETF.COM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